

IT수출 수지흑자 동반최대치

7월 IT수출과 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동반 달성했다. IT수출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하며 종전 최대인 '07년 10월 130.7억 달러를 3개월 만에 넘어선 137.9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IT무역수지 흑자도 사상 처음으로 70억 달러 대에 진입하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국의 IT 수요 증가로 반도체는 지난 5월의 43.9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46.2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0.9% 증가)를 기록하였고, 디스플레이패널도 32억 달러(27.8% 증가)로 사상 처음 3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였다.

반면, 휴대폰은 수출 단가 하락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 실적이 20.9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6월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 출시 확대로 전월 대비로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휴대폰 수출 증가율(전월 대비, %)은 ('10.4) -14.1 → (5) -0.1 → (6) 6.8 → (7) 12.1이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는 전년 동월대비)

구분	2010년		2009년		
	7월	1~7월	7월	1~7월	
수출	전체 산업	413.6 (29.6)	2,628.7 (33.6)	319.1 (Δ22.1)	1,966.9 (Δ22.8)
	IT 산업	137.9 (26.9)	866.4 (36.5)	108.7 (Δ10.5)	634.9 (Δ21.1)
수입	전체 산업	356.8 (28.9)	2,395.6 (38.4)	276.8 (Δ35.6)	1,730.7 (Δ34.4)
	IT 산업	65.6 (13.7)	418.2 (23.5)	57.7 (Δ13.7)	338.6 (Δ25.2)
무역수지	전체 산업	56.7	233.1	42.3	236.2
	IT 산업	72.3	448.3	51.0	296.3

국가별 수출은 미국(17.1억 달러, 18.0%), EU(15.5억 달러, 8.5%), 일본(8.8억 달러, 46.1%)

등의 선진 시장과 중국(홍콩포함, 62.8억 달러, 36.3%), 중남미(7.8억 달러, 17.1%), ASEAN(12.0억 달러, 23.7%) 등 개도국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IT수출 대상 최대 국인 중국(홍콩 포함)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며 단일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6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수출 비중 추이(%)는 ('08.7) 37.7 → ('09.7) 42.4 → ('10.7) 45.6이다.

【 '10년 7월 IT산업 주요 국가 / 품목별 수출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반도체	패널	휴대폰	전체
전체	46.2 (70.9)	32.0 (27.8)	20.9 (Δ20.0)	137.9 (26.9)
중국(홍콩포함)	24.7 (96.4)	19.9 (34.6)	4.6 (Δ44.2)	62.8 (36.3)
미국	3.4 (72.0)	0.4 (Δ32.9)	8.4 (2.4)	17.1 (18.0)
일본	3.7 (21.7)	1.1 (44.7)	1.8 (272.5)	8.8 (46.1)
EU	3.3 (127.1)	4.8 (16.9)	2.1 (Δ53.8)	15.5 (8.5)

한편, IT수입은 전자부품(40.2억 달러,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7.4억 달러, 19.2%) 등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3.7% 증가한 6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향후, IT수출은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은 국내 업체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대폰 수출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라인업 확대로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의 재고 확대 및 단가 하락은 수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 : 46.2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70.9% 증가

반도체는 메모리 수출 호조로 '10.5월의 43.9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D램은 업체 간 출하 경쟁 심화와 재고 확대로 단가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국내 업체의 미세공정 전환 성공에 따른 원가 절감과 높아진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년 동월대비 119.6% 증가한 17.8억 달러이다.

한편, 낸드플래시는 고용량 NAND 탑재 스마트폰 출하 증가와 Tablet PC 등 신규 Application 출시로 전년 동월대비 53.4%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4.7억 달러, 96.4%), 미국(3.4억 달러, 72.0%), 일본(3.7억 달러, 21.7%), EU(3.3억 달러, 127.1%) 등 주요 국가 수출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반도체	27.0	28.8	32.1	34.3	35.0	34.4	33.0	33.5	40.4	41.8	43.9	43.8	46.2
	(Δ15.6)	(Δ7.2)	(9.2)	(36.4)	(80.1)	(125.5)	(120.6)	(117.9)	(123.0)	(97.6)	(82.6)	(74.2)	(70.9)
메모리	13.3	14.7	16.0	17.8	19.4	20.0	19.6	19.3	22.8	24.6	26.0	25.3	26.4
	(Δ23.3)	(Δ12.7)	(10.5)	(56.0)	(114.1)	(174.8)	(171.8)	(144.6)	(163.9)	(150.1)	(127.4)	(103.4)	(98.5)
D램	8.1	8.7	9.3	10.5	12.4	13.8	13.8	13.0	15.1	16.0	17.6	16.7	17.8
	(Δ25.0)	(Δ20.6)	(9.6)	(69.1)	(141.1)	(186.4)	(215.1)	(195.9)	(204.1)	(201.3)	(179.1)	(142.1)	(119.6)
낸드	1.6	2.0	2.1	2.4	2.0	1.8	2.1	2.1	2.4	2.5	2.4	2.4	2.4
	(Δ31.5)	(Δ2.4)	(24.5)	(86.1)	(78.0)	(132.4)	(110.0)	(92.5)	(81.9)	(77.9)	(40.2)	(48.6)	(53.4)

※ 메모리반도체에 메모리 MCP 포함

패널(부분품 포함) : 32.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7.8% 증가

패널 수출은 종전 최대치인 '10년 5월 29.1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처음 30억 달러 대 수출을 달성하였다.

패널은 유럽 재정 위기와 TV, PC용 패널의 재고 확대로 단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등 신흥국 중심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호조세를 유지하였다.

LCD 가격(TV용 Full HD, 42인치, \$)은 ('10.1)340 → (3)340 → (4)335 → (5)335 → (6)328 → (7)323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34.6%), 브라질(81.0%) 등 주요 생산 거점으로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멕시코(Δ5.8%), 폴란드(Δ4.1%) 등은 감소하였다.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09.7	8	9	10	11	12	'10.1	2	3	4	5	6	7
금액	25.0	25.5	26.3	26.6	24.9	26.3	24.6	23.3	28.4	28.4	29.1	28.8	32.0
(증감률)	(5.1)	(7.8)	(4.1)	(10.3)	(34.9)	(113.7)	(99.5)	(55.8)	(46.0)	(40.2)	(37.6)	(28.3)	(27.8)

휴대폰(부분품 포함) : 20.9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0% 감소

휴대폰 수출은 국내 업체들의 스마트폰 지연 출시와 수출 단가 하락으로 감소했으나, 잇따른 전략 스마트폰 출시로 20억 달러대 수출을 회복하였다.

글로벌 휴대폰 시장은 스마트폰이 글로벌 휴대폰 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노키아, 소니에릭슨 등 '기존 휴대폰 업체의 부진'과 RIM, 애플, HTC 등 '스마트폰 전문 업체의 실적 호조'의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국내 업체 또한 스마트폰 시장 대응 지연과 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지난 6월 이후 본격적인 스마트폰 출시 확대에 전월 대비 수출은 증가세이다. 휴대폰 수출 증가율(전월 대비, %)은 ('10.4) -14.1 → (5) -0.1 → (6) 6.8 → (7) 12.1이다.

지역별로 스마트폰 수출 증가로 미국(8.4억 달러, 2.4%)은 1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국내 업체의 적극적인 프로모션 확대로 일본(1.8억 달러, 272.5%) 수출은 세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4.6억 달러, △44.2%), 중남미(1.2억 달러, △2.8%), 중동(0.5억 달러, △0.1%) 등 신흥국가 수출과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EU(2.1억 달러, △53.8%), 동유럽(0.5억 달러, △58.2%) 수출은 부진하였다.

【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26.2	22.8	25.1	25.8	24.6	18.4	21.2	18.7	20.4	17.5	18.7	18.7	20.9
(증감률)	(△11.4)	(△18.0)	(△22.6)	(△31.3)	(2.7)	(12.8)	(△3.4)	(△21.0)	(△14.8)	(△28.2)	(△29.8)	(△25.5)	(△20.0)

칼라 TV(부분품 포함) : 7.0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 대비 56.1% 증가

칼라TV는 중국 TV 시장의 본격 성장기 진입, 국내 업체 주도의 LED TV 시장 확산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

최근 TV업체 간 경쟁 심화로 TV 가격은 하락세이나, 국내업체는 LED TV등 프리미엄 제품의 지속적 출시와 주요 유통채널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시장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LCDTV가격(42인치, \$)은(10.1) 1,004 → (2) 957 → (3) 919 → (4) 1,046 → (5) 960 → (6) 993

【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칼라TV	4.5	4.4	5.4	4.9	4.6	5.1	5.4	5.1	6.4	6.9	6.6	6.5	7.0
(부분품 포함)	(△18.6)	(△8.8)	(△2.6)	(10.0)	(100.0)	(144.6)	(91.0)	(51.0)	(47.5)	(44.3)	(68.6)	(58.8)	(56.1)
LCD TV	0.5	0.4	0.5	0.6	0.6	0.6	0.5	0.3	0.5	0.5	0.6	0.8	0.6
(부분품 포함)	(△35.5)	(△20.9)	(△12.5)	(28.6)	(37.2)	(94.3)	(77.6)	(7.4)	(13.8)	(36.6)	(14.7)	(47.7)	(27.3)
PDP TV	0.2	0.2	0.2	0.2	0.2	0.2	0.2	0.2	0.2	0.3	0.3	0.3	0.3
(부분품 포함)	(△18.4)	(△10.3)	(△29.4)	(△23.7)	(43.0)	(4.4)	(29.5)	(△17.5)	(20.3)	(15.7)	(△12.3)	(8.4)	(8.5)
TV 부품	3.7	3.8	4.5	4.0	3.7	4.2	4.6	4.6	5.7	6.0	5.7	5.5	6.1
(부분품 포함)	(△15.2)	(△7.2)	(1.6)	(11.1)	(123.2)	(175.5)	(97.4)	(61.6)	(54.2)	(47.8)	(85.7)	(65.3)	(64.1)

→ (7) 960이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56.6%), 멕시코(40.0%), 헝가리(57.2%), 인도(46.0%) 등 생산 거점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중국(홍콩 포함) : 62.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6.3% 증가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패널(19.9억 달러, 34.6%), 반도체(24.7억 달러, 96.4%), TV부분품(0.7억 달러, 71.6%) 등의 성장세 지속으로 단일 국가 사상 처음으로 60억 달러 대 수출을 기록하였다.

반면, 휴대폰(4.6억 달러, △44.2%)은 부분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미국 : 17.1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18.0% 증가

반도체(3.4억 달러, 72.0%), 휴대폰(8.4억 달러, 2.4%)이 수출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셋탑박스(0.2억 달러, 36.5%), TV(0.2억 달러, 97.6%) 등 영상기기 수출도 호조하였다. 반면, 패널(0.4억 달러, △32.9%), 프린터(0.3억 달러, △9.6%), HDD(0.1억 달러, △30.6%) 등은 부진하였다.

EU : 15.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8.5% 증가

반도체(3.3억 달러, 127.1%), 패널(4.8억 달러, 16.9%), TV부분품(1.7억 달러, 44.2%) 등 완제품 생산을 위한 IT 부(분)품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휴대폰(2.1억 달러, △53.8%)은 부진하였다.

일본 : 8.8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46.1% 증가

반도체(3.7억 달러, 21.7%), 패널(1.1억 달러, 44.7%) 등 수출이 확대되었다. 특히 휴대폰(1.8억 달러, 272.5%) 및 TV(0.2억 달러, 133.1%)는 세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